

이세돌, 이제 천하를 호령할 차례다!

박정환 · 원성진 세계챔프 올라

□ 글/구기호 편집장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1년 바둑계에도 많은 변화와 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십수 년 동안 꿈쩍 하지 않았던 입단제도가 새롭게 단장됐고, 한국기원이 장기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있는 군바둑, 소외계층, 기우회 등의 바둑보급 사업도 점차 자리잡으며 실적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바둑팬들이 가장 반가웠던 소식은 한국바둑의 재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세돌 九단의 비상(飛翔)으로 출발한 2011년 한국바둑은 국내외에서 수많은 낭보와 함께 깜짝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한국바둑의 미래로 불렸던 박정환 九단이 8월 일본 열도에서 후지쯔배를 품으며 세계챔프에 이름을 올렸고, 연말에는 삼성화재배에서 '황소3총사'의 일원인 원성진 九단이 중국의 실질적 일인자라 할 수 있는 구리 九단을 꺾으며 늦깎이로 세계챔프의 한을 풀었습니다.

이들 세계챔프의 성과에는 조금 못 미치겠지만 국내대회에서도 서능욱과 이영구 九단이 만년 준우승의 한을 풀며 타이틀홀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활약상을 '2011년을 빛낸 한국바둑계의 별들'로 엮어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2003년을 불과 며칠 남겨두기 전까지 한국바둑은 '세계최강'을 넘어 가히 독보적이었다. 조훈현, 유창혁, 이창호에 이어 이세돌의 가세로 국제대회에서 무려 23연속 우승과 함께 메이저 세계대회 15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이들의 활약에 중국의 천재기사 마샤오춘이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내 세계챔프의 권좌에서 물러났고, 마샤오춘의 뒤를 이을 중국의 희망이던 창하오 역시 세계대회 만년 준우승자의 설움을 톡톡히 겪어야 했다.

그런 한국 일색이던 세계바둑계의 기류가 2004년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단초는 이창호의 부진이었고..., 굳이 시점을 따지자면 2003년 12월 11일 제8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 오픈선수권대회(당시 대회명) 결승에서 박영훈이 조치훈에게 패하며 한국바둑의 국제메이저 대회 우승기록이 V15에서 스톱된 것이 행복 끝

고생 시작의 출발점이었다.

연승행진이 멈추면서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일본의 강한 도전을 받았고, 특히 중국의 거듭된 도전에 2006년 이후로는 중국에 밀리는 양상으로 변했다.

이창호의 부진 속에 한국바둑은 제2의 이창호 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세돌이었다.

조치훈은 삼성화재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이창호의 뒤를 이어 한국의 톱스타는 누구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는데, 그게 이세돌이었다. 조치훈은 이세돌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그는 기질적으로 강하다." 이세돌에 대한 짧고 단호한 표현이었다.

조치훈의 진단은 이후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이세돌은 이후 매년 세계대회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더니 2006년 이후 이창

호를 확실하게 제치고 비로소 일인자로 올라서게 된다.

이세돌의 전성시대는 그의 결혼과도 맞물린다. 2006년 다소 이른 나이(24세)에 결혼한 이세돌은 안정을 찾으며 바둑에 매진하더니 2년이 채 안 되는 동안 국내외 기전에서 무려 10개의 타이틀을 쓸어 담았다(그가 12년 간 일궈낸 타이틀의 절반가량을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따낸 것이기에 놀라운 일이었다).

2006년 이후 한국바둑계는 이세돌의 비상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바둑국보' 이창호의 쇠락에 한국바둑은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았고, 점점 입지가 좁아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세돌의 비상은 위기의 한국바둑을 다시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저무는 한국바둑'이라는 오명도 떨치고, '꽃피는 중국바둑'에 뒷서리를 퍼부을 수 있는 확실한 구세주였던 셈이다.

“마음만 먹으면 우승은 이세돌의 차지다.”

2011년은 이세돌의 폭풍질주 예고편으로 부르고 싶다. 세계대회 2관왕에 오르긴 했지만 국내기전에선 olleh배와 십단전 우승에 그쳐 종합해 보면 평년작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제3회 비씨카드배 결승에서 중국의 라이벌로 꼽혔던 구리(3-2)와 제8회 춘란배 결승에서 천적(?) 씨에



2011년 '세기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3회 비씨카드배 결승에서 이세돌 9단이 중국의 구리 9단을 꺾고 우승, 세계최강자임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허(2-1)를 꺾으며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점이다. 기사들에게, 특히 승부사들에게 자신감은 상승세로 이어지는데, 이 두 차례의 라이벌과 천적의 대결에서의 승리는 분명 금년 이세돌의 행보에 날개를 달아 더 멀리 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은 바둑올림픽으로 불리는 응씨배

회	기전명	우승	전적	준우승	주최국	비고
3	비씨카드배 월드바둑챔피언십	이세돌 9단	3-2	구리 9단	한국	이세돌, 2연패
15	LG배 세계기왕전	박문요 5단	2-0	콩지에 9단	한국	박문요, 첫 우승
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원성진 9단	2-1	구리 9단	한국	원성진, 첫 우승
24	후지쯔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박정환 9단	1-0	치우쥘 8단	일본	박정환, 첫 우승
8	춘란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이세돌 9단	2-1	씨에허 7단	중국	이세돌, 첫 우승
23	TV바둑아시아선수권대회	콩지에 9단	1-0	백홍석 8단	중국	콩지에 3연패
12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한국			한국	한국, 3연패
9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대회	한국			한국	한국, 2연패
2	궁륭산병성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대회	박지은 9단	1-0	탕이 2단	중국	박지은, 2연패

(표1) 2011년 세계대회 우승현황

기	기전명	우승	전적	준우승	비고
2011	한국바둑리그	포스코LED	3-1	하이트진로	포스코LED, 첫 우승
2011	olleh배	이세돌 九단	3-1	이창호 九단	이세돌, 2연패
39	하이원리조트배 명인전	박영훈 九단	3-1	백홍석 八단	박영훈, 2연패
16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박정환 九단	3-0	박영훈 九단	박정환, 첫 우승
55	국수전	조한승 九단	3-2	최철한 九단	조한승, 첫 우승
7	원익배 십단전	이세돌 九단	2-1	강유택 四단	이세돌, 첫 우승
7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이영구 八단	2-1	윤준상 八단	이영구, 첫 우승
16	박카스배 천원전	최철한 九단	2-0	윤준상 九단	최철한, 2연패
29	KBS바둑왕전	박정환 九단	2-1	백홍석 七단	박정환, 첫 우승
5	지지옥션배 시니어 대 여류	시니어		여류	시니어 vs 여류, 3-2
12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박영훈 九단	2-0	이창호 九단	박영훈, 2회째
2	대주배 시니어최강자전	서능욱 九단	1-0	조훈현 九단	서능욱, 첫 우승
16	가그린배 프로여류국수전	루이 九단	2-0	김윤영 三단	루이, 3연패
12	STX배 여류명인전	루이 九단	2-1	조혜연 九단	루이, 7연패
5	부안 여류기성전	루이 九단	1-0	최정 初단	루이, 4회째 우승
1	KC&A배 신인왕전	강유택 四단	2-0	이동훈 初단	강유택, 첫 우승
1	SG세계물산배 페어바둑최강전	한상훈 · 김미리	1-0	목진석 · 김혜민	

(표2) 2011년 국내기전 우승현황

가 열리는 해이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응씨배는 이세돌이 아직 우승해 보지 못한 유일한 대회이기도 하다(이세돌이 이 대회를 우승할 경우 메이저 세계대회 그랜드슬램을 이루게 된다). 그도 사람인 이상 기록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 싶었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금년에 응씨배가 열린다. 응씨배 우승에 대한 욕심은 없는가?

“욕심이 있다고 해서 우승하는 건 아니다. 우승하고 싶지만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개의치는 않는다. 어차피 금년 목표가 응씨배 우승은 아니니까.”

-그럼?

“작년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내는 거다. 작년엔 다승, 승률이 예전만 못했다. 국내기전도 그렇지만 세계대회에서 조금 더 성적을 내고 싶다.”

-그 말은 세계대회 쪽에 치중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국내기전보다 세계대

회 비중이 더 큰 만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응씨배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응씨배를 우승하면 그랜드슬램인데….

“기록에 연연하진 않는다. 달성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후회는 없다. 그레야 다음에 또 도전할 것 아닌가.”

기대와는 다른 대답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그레야 다음에 또 도전할 것 아닌가.”라는 이 세돌다운 답변에 유쾌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짧은 몇 마디 말 속에서 지난해보다 금년 성적이 좋을 거라는 믿음도 생겼다.

박정환 · 원성진, 세계챔프 등극으로 초일류기사 반열에

2011년 8월 14일과 12월 7일은 한국바둑계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박정환과 원성진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 일찍이 ‘한국바둑의 미래’로 불리며 기재를 인정받았던



2011년 8월 박정환이 후지쯔배를 품으며 세계챔프에 올라 미래 한국바둑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 대미를 장식한 원성진 九단. 연말 벌어진 제16회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중국의 구리를 꺾고 우승해 바둑팬들을 열광시켰다.

두 기사는, 그러나 사뭇 다른 행보(박정환은 초고속으로, 원성진은 늦깎이로)를 보이며 2011년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초일류기사 대열에 올라 바둑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창호-이세돌의 뒤를 이을 한국바둑의 차세대 신예프로기사는 누구일까?’ 2006년 12월 인터넷 바둑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벌였을 때 당시 쟁쟁하던 고근태, 윤준상, 홍성지, 강동윤, 이영구, 백홍석, 김지석 등의 선배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천재 소년 박정환은 그 기대에 빠르게 화답했다.

제24회 후지쯔배에서 한달음에 결승까지 치고 올라간 것도 모자라 2011년 8월 14일 열린 결승에서 중국의 치우권을 꺾고 세계챔프에 이름을 올려 한국바둑의 차세대 에이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국내기전에서도 GS칼텍스배와 KBS바둑왕전을 우승해 olleh배와 십단전 우승을 차지한 이세돌 九단과 2관왕으로 군림하고 있으니 성장 속도대로만 보면 이창호에 버금갈 정도다.

그가 이렇게 빠르게 세계챔프가 될 거라고 예상은 사람은 많지 않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바둑이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으며 위축되던 시기였고, 그에 따라 박정환의 세계챔프 등정까지는 적어도 7~8년은 걸릴 것이라는 게 바둑계의 중론이었다. 그런데 입단 5년차 만에 국내기전 5회 우승과 세계대회 1회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우승 직후 본지 인터뷰에서 자신의 바둑에 대해 “지는 것을 싫어하는… 독한 승부사.”로 평했던 박정환은 다음 목표로 자신에게 “2년 연속 결승진출을 허락하지 않았던 비씨카드배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금년 비씨카드배에서 그 공언(?)이 이뤄질지 자못 흥미롭다.

박정환과 더불어 2011년 자신의 주가를 한껏 끌어올리며 초일류급 대열에 오른 기사가 원성진 九단이다. 입단 초기부터 무서운 한방의 위력을 과시하며 동료기사들로부터 ‘원편치’라는 별명을 얻은 원성진은 소띠 동갑내기 친구인 최철한·박영훈과 함께 한국바둑의 미래를 책임질 재목 중 한명으로 관심을 듬뿍 받았었다. 그런데, 2010년 GS칼텍스배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원성진이 거둔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2007년 박카스배 천원전에서 단 한 차례 우승한 것을 빼면 변변히 내세울 것이 없을 정도로 활약이 없었다. 2006년 말과 2007년 초에 각각 한 차례씩 두 번의 우승 경력이 더 있지만 이진 신예기전으로 반쪽짜리 우승에 불과해 내세울 바가 못 된다.

그런 이력이 전부였기에 2011년 말, 더군다나 적지에서 벌어진 제16회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우승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하다고

보고 있었다. 더구나 상대는 중국의 실질적 일인자로 그동안 세계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절대강자 구리 九단. 객관적 전력에서 밀릴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2-1로 우승을 일궈내자 바둑팬들은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환호했다. 그리고 그 환호는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바둑팬들의 뇌리에 생생하다.

삼성화재배 우승 직후 원성진의 이름 뒤에 줄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생겼다. 대기만성(大器晩成)! 비록 남들보다 한발 늦게 빛을 발한 원성진이지만 지금부터의 활약은 그 누구보다 거세고 힘찰거라는 기대가 아닐까 싶다.

서능욱·이영구, 우승의 한을 풀다

“전자랜드배 우승으로 평생 밥 벌어먹을 밑천을 장만했다고 본다.” 바둑계의 김구라로 불리는 김성룡 九단이 2004년 제1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현재 중단)을 깜짝 우승한 뒤 술자리에서 밝힌 바 있다. 우승과 평생 밥 벌어먹을 밑천 장만과 무슨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 소회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나 싶다. 그때 전자랜드배 우승으로 김성룡이 지금까지도 또래에 비해 바둑밥을 풍족(?)하게 먹고 있으며 대접과 예우도 받고 있으니까.

프로들에게 우승은 바로 그런 것이다. 평생의 자랑이자 자신의 주가를 높여주는 척도인



왼쪽) 13전14기로 40년의 한을 푸 서능욱 九단
오른쪽) 6전7기만에 본경기전 우승을 차지한 이영구 九단

셈이다. 그런데, 그 우승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타이틀홀더의 길은 멀고도 험하고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계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예, 시니어 기전 우승을 포함해 타이틀홀더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20% 남짓(2011년 바둑연감 타이틀 획득 일람표에 의하면 60명이 우승과 인연을 맺었다.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사와 작고, 은퇴한 기사를 포함해 대충 300명으로 계산해 보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

더구나 전관왕을 무려 세 차례나 달성했던 조훈현과 이창호가 버티고 있던 시대라면 그만큼 우승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타이틀홀더의 꿈은 언감생심 꿈조차 꿀 수 없을 테니까.

그 피해자 중 한명이 서능욱 九단이다. 기사생활 40년을 하는 동안 무려 13번이나 준우승에 머무는 비운을 맛봤다. 결승 문턱에는 서봉수가 버티고 있었고, 그 고비를 넘었다 싶으면 이번엔 불세출의 기사 조훈현이 또 버티고 있었다. 특히 결승에서 철천지인수(?)로 조훈현에게 당한 패배만 12번. 이 정도면 치가 떨릴 법도 하다.

그런 그가 2011년 말 제2기 대주배 시니어최강자전 결승에서 조훈현 九단을 꺾고 꿈에 그리던 우승의 단맛을 맛봤다(준결승전에선 서봉수 九단을 이기고 결승에 올랐었다). 우승이 결정되는 순간 서능욱은 물론이고 팬들도 노장의

랭킹	기사명	상금액수
1	이세돌 九단	7억 7446만 1590원
2	박정환 九단	4억 1896만 4000원
3	최철한 九단	4억 1482만 9190원
4	원성진 九단	2억 7022만원
5	박영훈 九단	2억 3465만 3710원
6	강동윤 九단	1억 8369만 700원
7	이창호 九단	1억 5606만원
8	김지석 七단	1억 4521만 6340원
9	목진석 九단	1억 4456만 5720원
10	이영구 九단	1억 3220만 4780원

〈표3〉 2011년 프로기사 상금랭킹 10걸

	신안천일염	영남일보	하이트진로	포스코LED	Kixx	한게임	넷마블	티브로드
1지명	이세돌 (10승 4패)	김지석 (8승 6패)	최철한 (11승 3패)	강동윤 (12승 2패)	박정환 (6승 7패)	이영구 (7승 6패)	이창호 (10승 4패)	허영호 (9승 5패)
2지명	안조영 (6승 8패)	강유택 (8승 6패)	안국현 (6승 8패)	목진석 (10승 4패)	조한승 (9승 5패)	윤준상 (10승 4패)	원성진 (9승 5패)	박영훈 (7승 7패)
3지명	한상훈 (7승 7패)	박정상 (8승 5패)	이춘규 (6패)	백홍석 (7승 6패)	김기용 (7승 6패)	진시영 (5승 9패)	한용규 (7승 7패)	김승재 (7승 7패)
4지명	강승민 (1승 6패)	이지현 (6승 7패)	김기원 (7승 5패)	온소진 (1승 10패)	홍성지 (7승 7패)	한태희 (3승 8패)	안형준 (3승 7패)	진동규 (1승 8패)
5지명	이정우 (1승 6패)	박진술 (2승 2패)	이원영 (7승 5패)	주형욱 (2승 2패)	김대용 (4패)	류재형 (4패)	이상훈 (1승 3패)	이용찬 (5패)
자율지명	김동호 (6승 8패)	나 현 (7승 5패)	안성준 (7승 5패)	김정현 (8승 6패)	박승화 (5승 7패)	이태현 (7승 7패)	김형우 (5승 9패)	고근태 (7승 7패)

(표4) 2011 한국바둑리그 개인성적

불굴의 투혼에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오죽 감격에 겨웠으면 우승 인터뷰에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라는 소감을 쏟아냈겠는가.

2011년 만년 준우승자의 딱지를 떼 기사가 한명 더 있다. 이영구 九단이다. 2001년 입단한 이영구는 빠르게 성장하며 2003년 제13기 비씨카드배 신인왕전 결승 무대에 진출해 화제를 모았다. 이기면 우승으로 당시 신예최강자의 권좌에 오를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송태곤에게 패하며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한다.

다음 해에도 기회(제14기 비씨카드배 신인왕전)가 있었지만 역시 안조영에게 1-2로 무릎을 꿇고 만다. 이후 신예 딱지를 떼기까지 두 번(2005년 제5기 오스람코리아배 신예연승최강전 1-2 강동윤, 2006년 제10기 SK가스배 신예프로10결전 0-2 백홍석)의 기회가 더 있었지만 역시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신예 딱지를 떼고 나서도 이 지독한 ‘준우승 징크스’ 는 계속됐다. 2006년 제40기 왕위전에서 이창호에게 판맛을 보지도 못하고 0-3으로 패퇴한 데 이어 2007년 제3회 한국물가정보배에서 다시 한번 천금의 기회를 잡았지만 이세돌에게 1-2로 패하고 말았다.

거듭된 좌절에 이영구는 점점 결승 무대에서 잊혀지기가 싫었다. 그런데, 2011년 9월 제7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에서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그 4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움켜잡았다. 윤준상을 2-1로 꺾고 우승한 것.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실히 함을 모른다고, 대국 후 두 눈에 눈물이 송골송골 맺힌 이영구의 모습에서 그간의 설움과 한을 바둑팬들은 동시에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

이밖에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으로 조기 제대한 조한승 九단이 빠르게 적응하며 국수 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박영훈 九단이 하이원리조트배 명인전, 최철한 九단이 박카스배 천원전을 각각 지켜내 타이틀 보유자의 명맥을 이어갔다.

한국바둑리그에서는 ‘무관(無冠)의 제왕’ 강동윤 九단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다. 2011년 포스코LED의 주장으로 발탁된 강동윤은 12승 2패로 선전, 팀 우승과 MVP 수상의 영예를 동시에 누렸다.

2012년 이들의 비상(飛翔)과 더불어 2011년 늦깎이로 첫 우승의 한을 푼 서능욱 九단과 신예 때의 한을 메이저 타이틀 획득으로 푼 이영구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